

가계 신용위험, 5년만에 '최악'

韓銀, 1분기 국내 은행 가계 대출태도·신용위험 등 전망

“대출 금리 상승 영향 문턱 높아지고 주택대출 수요 급감”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신용위험이 5년 만에 가장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태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신용위험지수는 27로 전망됐다. 지난해 4분기 17에서 10포인트 뛰어오른 것이다. 전망치가 그대로 이어지면 2013년 1분기(2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

대출태도조사에는 국내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모두 19개 금융기관의 여신종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3개월간 설문조사한 결과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지수는 0을 기준으로 100과 -100사이에서 플러스(+)이면 '증가', 마이너스(-)이면 '감소' 쪽이 더 많다는 얘기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일부 부



방의 주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자 상환부담이 늘면서 연체 등 가계의 신용위험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신용위험도 올라 전체 종합 신용위험지수도 23으로 지난해 4분기(19)보다 4포인트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1분기 23으로 전분기(20)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대기업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등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기업의 신용위험은 조선·철강업 등 일부 업종의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10으로 전망됐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8로 전분기(-8)보다 더 강화됐다.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부터 10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심 전망이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으로 전분기(-27)보다 더 내려갔다. 가계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도 -13으로 마이너스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간간하게 심사하겠다는 은행이 많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대출(-7)도 3월 정부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의 영향을 받아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주택 대출수요지수는 지난해 4분기 -17에서 올 1분기 -27로 10포인트 줄었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의 일반자금대출 수요도 -3으로 금리상승 등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전남 올해 물김 생산액 5000억 전망...수출 6억 달러 견인

전남도는 2018년산 물김 생산액이 오는 5월까지 총 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까지 생산될 물김 생산액은 38만 t, 금액으로는 5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전년동 같은기간 31만 t, 4000억원에 비해 금액기준 25%가 증가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고흥 등 12개 시군 280여 어가가 70만 5000척에서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생산한다. 지난해 말 기준 물김 생산액은 전년에 비해 500억 원이 늘어난 1050억 원을 돌파했다.

시군별로는 진도에서 279억 원, 해남 253억 원, 고흥 222억 원, 신안에서 95억 원이 생산됐다.

전남 물김 생산량은 전국의 80%

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마른김 업체에서 1차 가공 후 전국 김 수출업체의 조미김·스낵김 등 2차 가공을 거쳐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5억 달러를 돌파해 수출 실적이 2010년 1억 달러 이후 7년만에 5배 늘었다.

2016년(3억 5000만 달러)에 비해

43% 늘어난 규모다. 올해 한국 김 수출산업은 전남 김 생산 호조에 힘입어 연말까지 6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24년 김 수출 10억 달러(1조 원)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 지난해 일본 48%, 중국 30.5%, 미국 23%, 러시아 27%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 수출국도 2007년 49개국에서 109개국으로 증가해 전 세계인이 찾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정환 기자

기아차 '더 뉴 레이&펫' 시승 이벤트

반려동물 키우는 고객 대상

기아자동차가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 뉴 레이&펫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더 뉴 레이'는 내·외장 디자인 변경, 안전·편의사항 신규 적용 등의 신차급 변화를 선보였다. 특히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증가하는 트렌

드를 반영해 ▲카시트(이동식 케이지) ▲카펜스(1-2월 중간 격벽) ▲2열용 방오 시트커버 등 반려동물 물의를 위한 '뉴온 펫' 3종을 최초로 출시했다.

기아차는 오는 26~29일, 다음달 2~5일, 9~12일 등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차일씩 3차례에 걸쳐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이 결격사유가 없다



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8일부터 21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사진과 반려동물 사진 등을 응모하면 된다.

기아차는 응모 고객 중 30명을 선정해 '뉴온 펫'이 장착된 '더 뉴 레이'를 3박 4일 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고 사료와 간식, 목욕용품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세트도 제공한다. 또 응모 기간 중 매일 3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폰을 선물한다.

시승이 끝난 후 개인 소셜관계망(SNS)에 시승 후기를 올린 고객 중 3명에게는 '이츠독 반려동물 슬링백'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보해양조, 황금 개띠 맞아

한정판 '순금매취순' 출시

프리미엄 설 선물세트...롯데백서 180세트 선보여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한정판 순금 매취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를 맞아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을 통해 180세트만 판매된다.

이번 '순금매취순 12년'은 한정판답게 기존 매취순보다 한층 더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췄다.

질은 쪽빛 케이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황금 개띠를 상징하는 황금 수호견이다. 경상북도 경주 김유신 장군의 묘를 지키고 있는 12지신 중 개의 형상을 본따다. '백사진경 황금수호견'(?) (護龍 黃金守護犬)은 '사귀를 내물고 경사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건강과 평화를 지켜주는 선물이 되기 바란다는 뜻을 담았다.

소수를 위한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걸맞게 최상급 재료에 88년 보해의 기술력으로 빚었다. 보해양조는 비옥한 토양으로 유명한 전남 해남에 국내 최대 규모 매취순 생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비단비림을 맞고 지란 최상급 매취순을 선별해 12년간 숙성시켰다.

순금매취순 12년은 롯데백화점



주류매장에서 이남부터 주문·판매된다.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분당점, 미아점, 청량리점, 인천점, 중동점, 평촌점, 일산점 등 9개 지점에서 선보인다. 알코올 도수는 18도이며 용량은 700ml, 소비자 가격은 11만1천 원이다.

한편 매취순은 지난 1990년 처음 출시된 후 OECD 세계포럼(2008년)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신회의(2006년) 민찬주 등으로 선정되며 우수성을 널리 인정 받았다.

김연숙 기자

진에어, 2017년 인기 여행지 1위 日 오사카

국제선 전년비 30% 증가

진에어는 8일 2017년 해외 인기 여행지로 일본 오사카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진에어의 2017년 국제선 여객 수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선 여객 수송객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49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여행객은 67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후쿠오카(45만명), 다낭(45만명), 세부(39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진에어 전체 국제선 이용객 가운데 23%인 112만명이 일본 대표 여행지인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방문했으며, 일본 지역 전체로는 200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이 여행지로서 인기를 얻은 이유는 엔저 현상, 유가 하

락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인하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 점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1~2시간의 짧은 비행 시간, 음식, 온천 등 여행지로서의 장점이 단거리 여행 고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다낭과 세부는 합리적인 현지 물가, 휴양과 관광을 두루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3,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중국인 탑승객 비중이 높은 제주~상하이 노선 약진도 눈에 띈다.

최근 6개월 간의 제주~상하이 노선 평균 탑승률은 96%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개별 여행객 수와는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